

# 하반기 경제 및 산업 전망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<b>I. 세계경제 및 수출 전망 .....</b>    | <b>1</b> |
| 1. 주요국 경제 동향 및 전망 .....         | 1        |
| 2.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.....         | 2        |
| 3. 대외경제 위험요인 .....              | 6        |
| 4. 수출 동향 및 전망 .....             | 7        |
| <b>II.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전망 .....</b> | <b>8</b> |
| 1. 조선 산업 .....                  | 8        |
| 2. 플랜트 및 해외건설 .....             | 10       |
| 3. IT 산업 .....                  | 15       |
| 4. 신재생에너지 산업 .....              | 17       |
| 5. 철강 산업 .....                  | 20       |
| 6. 석유화학 산업 .....                | 21       |

작성 : 선임연구원 이재우 (3779-6685)  
         선임연구원 양종서 (3779-6679)  
         선임연구원 강정화 (3779-5327)  
         선임연구원 김윤지 (3779-6677)  
         선임연구원 성동원 (3779-6680)  
         책임연구원 이미혜 (3779-6656)  
 확인 : 실장 이진권 (3779-6670)

## < 요약 >

### I. 세계경제 및 수출 전망

- **[해외경제]**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나, 미국·일본, 유로존, 개도국 간 회복속도가 3분(three-speed recovery)될 전망
- **미국** : 하반기중 소비 등 민간부문이 경기회복세를 주도하며 상반기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연간 1.7~8%의 성장률 기록 전망
  - **중국** : 중국정부의 질적 성장으로의 정책전환 등으로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나 하반기 이후 내수 회복되며 연간 7.8% 성장률 전망
  - **일본** : 내수부양책, 엔저에 따른 수출회복 개선,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연간 2%의 건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
  - **유로** : 고용부진, 역내수요 위축,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지속 등으로 연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- **[금융시장]**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, 아베노믹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며 실물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
- **원/달러환율** :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소폭 하락압력을 받으며 하반기중 1,130원/달러 수준을 유지할 전망
  - **미국채수익률(10년물)** : 미국 고용지표 향방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등락을 반복하며 기조적 상승세를 유지 연말 2.6%대를 기록할 전망
  - **유가** : 글로벌 경기의 낮은 회복세, 공급 증가 등 수급 완화로 하반기 유가는 상반기 대비 소폭 하락하여 WTI유 기준 93달러 내외 전망
- **[수출전망]**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율이 완만히 상승하여 연간 3% 대의 증가율 기록 전망

(단위 : 억달러)

| 구 분          | 2011년            | 2012년            | 2013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연간               | 연간               | 1/4              | 2/4              | 한은전망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산업연구원 전망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하반기             | 연간              | 하반기             | 연간              |
| 수 출<br>(증감률) | 5,552<br>(19.0%) | 5,479<br>(-1.3%) | 1,354<br>(0.4%)  | 1,413<br>(0.8%)  | 2,913<br>(6.8%) | 5,680<br>(3.7%) | 2,905<br>(6.5%) | 5,685<br>(3.8%) |
| 수 입<br>(증감률) | 5,244<br>(23.3%) | 5,196<br>(-0.9%) | 1,299<br>(-2.9%) | 1,275<br>(-2.3%) | 2,739<br>(7.2%) | 5,310<br>(2.2%) | 2,751<br>(7.7%) | 5,360<br>(3.2%) |

## II. 주요 산업별 전망

□ [조선] 2013년도 선박 수주량은 전년대비 약 52% 증가한 11.6백만CGT 전망

-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의 시황이 유지되며 제품운반선 등이 상반기와 같은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
- 해양부문의 부진으로 수주액 증가폭은 약 17%에 그쳐 수주액은 총 350억달러 규모 전망
- 수출은 LNG선, drill-ship 등 2011년에 수주한 고부가선들의 인도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상반기에 비해 증가 전망

단위: 백만CGT, 억달러, %

| 구 분              | 2010년             | 2011년            | 2012년             | 2013년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1~6월              | 연간전망            |
| 수 주 량<br>(증 감 율) | 11.3<br>(359.9%)  | 13.7<br>(21.0%)  | 7.6<br>(△44.1%)   | 6.0<br>(61.5%)    | 11.6<br>(52.4%) |
| 수 주 액<br>(증 감 율) | 313.2<br>(323.9%) | 508.3<br>(62.3%) | 298.7<br>(△41.2%) | 184.9<br>(24.6%)  | 350<br>(17.2%)  |
| 수 출 액<br>(증 감 율) | 491.1<br>(8.8%)   | 565.9<br>(15.2%) | 397.5<br>(△29.8%) | 190.4<br>(△25.3%) | 390<br>(△1.9%)  |

□ [플랜트] 금년도 수주액은 전년대비 약 4% 감소한 620억달러 전망

- 발전 및 담수 플랜트 : 동남아의 전력수요 증가, 세계적인 천연가스 발전소 증설, 일본 태양광 플랜트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발전소 발주 증가 등으로 연간 190억달러 수주 전망
- Oil & Gas 플랜트 : 하반기에도 풍부한 원유, 가스를 보유한 중동 등에서 대규모 발주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수주세가 지속되어 연간 수주액은 전년대비 약 20% 증가한 122억달러 기록 전망
- 석유화학 플랜트 :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따른 에탄 크래커 경쟁력 제고로 북미 외 지역의 에틸렌 생산 플랜트는 지연,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 연간 수주액은 전년대비 50% 감소한 40억달러 전망

단위: 억달러, %

| 구 분             | 2010년           | 2011년           | 2012년           | 2013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~6월            | 전망p             |
| 플랜트 수주<br>(증감률) | 644.8<br>(39.3) | 649.6<br>(0.7)  | 647.6<br>(△0.3) | 280.9<br>(△1.9) | 620<br>(△4.2)   |
| 해외건설수주<br>(증감률) | 142.9<br>(4.1)  | 158.8<br>(11.1) | 253.3<br>(59.6) | 161.4<br>(13.1) | 290.0<br>(14.4) |

주: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, 해외건설 수주액은 산업설비(플랜트) 제외치

□ **[IT]** 연간 IT 수출은 전년대비 7.0% 증가한 1,661억달러 전망

- **반도체** : 엘피다 등 글로벌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급 감소, 메모리반도체 단가 상승에 따른 시장 성장 회복(연간 14.2% 성장 전망, IHS) 등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
- **휴대폰** : 하반기 성수기를 겨냥한 신규 스마트폰 출시 및 신흥시장 스마트폰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세 유지 예상
- **디스플레이 패널** : 중국 보조금 프로그램 종료와 TV시장 및 애플 부진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수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

단위: 억달러, %

| 구 분         | 2010년             | 2011년            | 2012년             | 2013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1~6월p           | 연간전망             |
| 수출<br>(증감률) | 1,539.4<br>(27.3) | 1,566.2<br>(1.7) | 1,552.4<br>(△0.9) | 812.4<br>(10.9) | 1,661.0<br>(7.0) |

□ **[신재생에너지]** 태양광 빠른 회복, 풍력 낮은 성장세 지속

- **태양광** : 일본, 중국 및 미국 수요가 하반기에도 크게 증가하고 유로지역의 견조한 성장세로 유지로 연간 35억달러 규모 수출 전망  
※ 2013년 태양광 신규 설치 전망치는 기존 30GW에서 40GW로 대폭 상향 조정됨
- **풍력** : 하반기 풍력시장은 유럽 풍력시장의 수요 증가 및 미국 시장 회복으로 상반기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나 설치량은 전세계적으로 전년대비 15% 감소한 39.5GW 규모에 머무를 전망

□ **[철강]** 하반기에도 공급과잉과 중국 수요 약세 등으로 부진 지속

- 9월로 예정된 현대제철 제 3고로 등 생산능력 확대로 동아시아 지역의 공급과잉 심화 전망
- 금년도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약 9% 감소한 336.4억달러 전망

□ **[석유화학]** 연간 수출액은 전년대비 6.8% 증가한 490억달러 전망

- 2011년 이후 침체된 석유화학 경기가 하반기 중국 GDP 성장률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
- 6월 이후 납사 가격 하락, 기초유분(에틸렌, 프로필렌) 수급 타이트 등 제품 수익성 개선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

# I. 세계경제 및 수출 전망

## 1. 주요국 경제 동향 및 전망

□ [동향] 상반기중 세계경제는 미국, 일본의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등 개도국 경제 부진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

- 미국 : 정부예산 자동삭감(Sequester)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및 노동 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며 민간부문이 완만한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음

※ 미국 실업률(%) : 8.2('12. 2/4)→ 8.0(3/4)→ 7.8(4/4)→ 7.7('13. 1/4)→ 7.6(2.4)

※ 케이스-실러 주택가격 증감률(전기비, %) :

-0.4('12. 1/4) → 2.2(2/4) → 1.7(3/4) → 1.9(4/4) → 3.4('13. 1/4)

- 중국 : 정부지출 축소, 소득증가율 둔화에 따른 가계소비 부진, 제조업 과잉투자 조정 등 내수부진으로 1분기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됨

※ 제조업 PMI(기준치 50) : 49.8('12.9월) → 50.6(12월) → 50.9('13.3월) → 50.1(6월)

※ 소매판매 증가율(전년동기대비, %) :

13.9('12. 2/4) → 13.5(3/4) → 14.9(4/4) → 12.6('13. 1/4) → 12.9(5월)

- 일본 :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(아베노믹스)으로 소비 등 경제심리가 회복되고 엔화의 평가절하로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음

※ 아베노믹스 : ①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한 물가상승률 2% 목표치 달성, ② 3.1조엔 규모의 추경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, ③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등 '3개의 화살'로 구성

※ 소비자태도지수(기준치 50) : 40.4('12.9월) → 39.1(12월) → 45.0('13.3월) → 45.6(5월)

- 유로 :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등 노력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은 줄었으나, 키프로스 사태, 이탈리아 정정 불안 등으로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등 경기둔화 지속

※ 유로존 실업률(%) : 11.3('12. 2/4)→ 11.5(3/4)→ 11.8(4/4)→ 12.1('13. 1/4)→ 12.2(5월)

※ 제조업 PMI(기준치 50) : 46.1('12.9월)→46.1(12월)→46.8('13.3월)→48.8(6월)

□ **[전망]** 하반기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여 전년과 비슷한 연간 3% 초반 성장률이 예상되나, 미국·일본, 유로존, 개도국 간 회복속도가 3분(three-speed recovery)될 전망

○ 미국 : 하반기중 소비 등 민간부문이 경기회복세를 주도하며 상반기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, 정부채무한도 조정, 금리상승 우려 등으로 연간 1.7~8%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
○ 중국 : 중국정부의 질적 성장으로의 정책전환 등으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유지하지 못하나, 정책대응 여력이 충분하여 하반기부터 내수가 회복되며 연간 7.8% 성장률 기록 전망

※ 중국정부의 경제지표 목표치 : 경제성장률 7.5%, 소비자물가 상승률 3.5%, 재정적자 1.2조위안, 통화증가율(M2 기준) 13%

○ 일본 : 내수부양책과 엔저에 따른 수출회복 및 수출기업 수익성 개선,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연간 2%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

○ 유로 : 재정위기 확대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나, 고용부진, 역내수요 위축,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지속 등으로 연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
- 국가별로는 독일이 0.3%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나, 이탈리아, 스페인, 프랑스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
### 세계 경제성장 전망

단위: %

| 구 분 | 2012년 | 2013년  |      |         | 2014 |
|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
|     |       | 1/4 실적 | 연간전망 | 4월전망 대비 | 연간전망 |
| 전세계 | 3.1   | -      | 3.1  | -0.2    | 3.8  |
| 선진국 | 1.2   | -      | 1.2  | -0.1    | 2.1  |
| 미국  | 2.2   | 1.8    | 1.7  | -0.2    | 2.7  |
| 유로  | -0.6  | -1.1   | -0.6 | -0.2    | 0.9  |
| 일본  | 1.9   | 0.4    | 2.0  | 0.5     | 1.2  |
| 개도국 | 4.9   | -      | 5.0  | -0.3    | 5.4  |
| 중국  | 7.8   | 7.7    | 7.8  | -0.3    | 7.7  |
| 인도  | 3.2   | 4.8    | 5.6  | -0.2    | 6.3  |
| 러시아 | 3.4   | 1.6    | 2.5  | -0.9    | 3.3  |
| 브라질 | 0.9   | 1.9    | 2.5  | -0.5    | 3.2  |

주: IMF, 세계경제전망 수정(7월)

## 2.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

### 1) 환율 동향 및 전망

□ **[동향]** 상반기중 원/달러환율은 북한 리스크가 확대,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에 따른 미달러화 강세 등으로 상승추세를 보임

- 연초 미국의 재정절벽 타결, 선진국 양적완화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자금유입 기대로 1월중 1,055원/달러 수준으로 하락
- 3월 이후 북한 리스크 확대, 미국 경기지표 개선 및 이에 따른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며 6월중 1,161원/달러 수준까지 상승
  - 4월중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며 다소 하락세를 보이며 1,080원/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5월 이후 재차 상승함
- 원/100엔환율은 일본의 적극적인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엔화 약세로 5월까지 1,078원/100엔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소폭 상승하여 6월말 1,167원/100엔을 기록

□ **[전망]** 원/달러환율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소폭 하락압력을 받으며 하반기중 1,130원/달러 수준을 유지할 전망

- 외환시장은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, 아베노믹스, 유로존 위기 지속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전망
- 원/달러환율은 미달러화 강세기조에도 불구하고, 수출회복 및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로 완만한 하락기조를 보일 전망

#### 주요 국제투자은행의 국제환율 전망 평균

| 구분       | 1/4   | 2/4   | 3/4(전망) | 4/4(전망)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원/달러 환율  | 1,111 | 1,142 | 1,134   | 1,133   |
| 달러/유로 환율 | 1.282 | 1.301 | 1.28    | 1.27    |
| 엔/달러 환율  | 94.2  | 99.1  | 102     | 105     |

주: 종가 기준, 자료: Bloomberg,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

## 2) 금리 동향 및 전망

□ **[동향]** : 글로벌 채권금리는 유로존 위기 재부각 등으로 4월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경기지표 회복 및 양적완화 정책 조기 종료 가능성으로 상승세를 보임

- 2월중순 이후 이탈리아 정치 불안, 미국의 정부지출 자동삭감 (Sequester) 등의 영향으로 미국채수익률(10년물)이 1.63%까지 하락
- 5월 이후 미국의 고용여건 및 주택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미연준이 양적완화 종기 종료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미국채수익률(10년물)은 2.74%로 급등한 이후 소폭 하락함
- 국내금리는 경기둔화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국고채수익률(3년물)이 2.44%까지 하락했으나, 미금리 상승에 동조하며 2.86%까지 상승한 이후 소폭 하락

□ **[전망]** : 글로벌 채권금리는 미국 지표 개선 및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의 확대 등으로 상승압력을 받으나, 국제경제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상승폭도 크지 않을 전망

- 미국채수익률(10년물)은 최근 급등세에서 안정화되며 하락세를 보이나, 장기적으로 미국 고용지표 향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며 기조적 상승세를 유지 연말 2.6%대를 기록할 전망
- 한국의 국고채수익률(3년물)은 글로벌 금리의 상승압력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자금회수 가능성으로 상승압력을 받으나, 경기둔화세에 따른 금통위의 금리인하 가능성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

### 주요 국제투자은행의 국제금리 전망 평균

| 구분            | 1/4   | 2/4   | 3/4(전망) | 4/4(전망)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미국채수익률(10년물)  | 1.86% | 2.49% | 2.50%   | 2.62%   |
| 일본국채수익률(10년물) | 0.57% | 0.85% | 0.87%   | 0.91%   |
| 국고채수익률(3년물)   | 2.52% | 2.88% | 2.84%   | 2.88%   |

주: 종가 기준, 자료: Bloomberg,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



### 3) 유가 동향 및 전망

- **[동향]** : 2013년 상반기 유가는 4월 중순 급락, 배럴당 90달러선이 붕괴되며 연중 최저치 기록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7월 초 100달러를 넘으며 연중 최고치 경신 중
- 4월 미국 원유 재고량 22년 이래 최대치 기록, 미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유가가 급락하여 배럴 당 90달러 선이 깨지며 연중 최저치 기록(WTI유 4.17일 \$86.68/배럴)
  - 6월 드라이빙 시즌 도래,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세(6.18일 \$98.44/배럴)를 보이다가 버냉키 발언 여파로 일시적으로 급락(6.21일 \$93.69/배럴)했으나 재고감소, 양적완화 지속 기대감으로 상승 회복, 6월 말 이후 급등하며 연중 최고치 기록(7.10일 \$106.52/배럴)
- **[전망]** :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수요 둔화, 공급 증가 등 수급 완화로 인해 하반기 유가는 상반기 대비 소폭 하락하여 WTI유 기준 93달러 내외 전망
- CERA, EIA 등 주요 기관들은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, 북미 비전통 원유 중심의 공급 증가 등에 따른 유가 약세를 예상하며 2013년 평균유가를 전년대비 낮게 전망
  - 유가 하락 전망이 지배적이나 이란, 이집트 등 중동 리스크 심화, OPEC의 유가하락시 공급량 축소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

####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

단위: \$/배럴

| 기관<br>(전망시기)       | 기준<br>유종 | 2012년<br>평균 | 2013년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1/4    | 2/4    | 3/4(전망) | 4/4(전망) | 연평균(전망) |
| CERA<br>(13.6.5.)  | Dubai    | 109.04      | 108.09 | 100.76 | 96.25   | 92.43   | 99.11   |
|                    | Brent    | 111.74      | 112.63 | 103.33 | 102.0   | 98.00   | 103.8   |
|                    | WTI      | 94.15       | 94.36  | 94.17  | 94.30   | 91.80   | 93.64   |
| EIA<br>(13.6.11.)  | WTI      | 94.15       | 94.36  | 94.17  | 92.33   | 93.17   | 93.25   |
| PIRA<br>(13.6.25.) | Brent    | 111.74      | 112.63 | 103.33 | 105.4   | 108.4   | 107.2   |
|                    | WTI      | 94.15       | 94.36  | 94.17  | 99.35   | 102.5   | 97.50   |

주1) 과거 가격평균 자료원은 Koreapds

주2) CERA: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(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)

EIA: 美 에너지정보청(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)

PIRA: 석유산업연구소(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)

### 3. 대외경제 위험요인

□ [위험요인] ① 유로존 재정불안, ② 미국 채무한도 협상 등 기존의 위험요인에 ③ 미국 등 선진국 양적완화 조기 축소, ④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패 여부 등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각됨

○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: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충분한 공감대 없이 조기에 실행될 경우 개도국 중심의 자본유출로 변동성이 확대되며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됨

-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미연준을 중심으로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
- 양적완화 축소가 빠르게 시행될 경우 유동성 공급 축소 기대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양적완화를 통해 유입되었던 개도국 및 원자재 시장에서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며 실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

○ 일본의 아베노믹스 : 일본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재정건정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될 경우 일본경제의 급격한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- 아베노믹스로 물가가 상승할 경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채무부담이 급증하며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
- 재정건정성 우려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, 추가하락, 금리상승 등 금융변동성이 확대되며 경기급락

※ S&P는 아베노믹스의 불확실성으로 신용등급의 강등가능성이 1/3 이상이라고 밝힘

○ 미국의 채무한도 협상 : 미국정부는 국가채무한도 증액 없이 정상적 재무운용이 어려운 만큼 9월 전후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

- 재정적자 감축방안 논의시 세입 증대와 의료보장 등 재정지출 감소간 우선순위에 대한 양당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
- 양당간 합의가 지연되고 정치권 대립이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

#### 4. 수출 동향 및 전망

□ **[동향]** 수출은 글로벌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'12년 4/4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며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0.6% 증가

○ 지역별 : 엔저와 재정위기 등으로 일본 및 유로에 대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아세안 중국 등 對신흥국 수출이 안정세 증가세를 유지함

※ 지역별 수출증가율(%) : 10.0(ASEAN), 9.8(중국), 2.1(미국), -3.8(EU), -11.5(일본)

○ 품목별 : 무선통신기기·반도체 등 IT제품과 석유화학 등은 선전하였으나,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선박·철강은 크게 부진

※ 수출증가율(%) : 30.0(무선통신기기), 8.6(반도체), 7.7(석유화학), 1.3(LCD), -1.7(자동차), -1.7(일반기계), -2.1(석유제품), -11.9(철강), -25.3(선박)

□ **[전망]**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율이 완만히 상승하여 연간 3% 대의 증가율 기록 전망

○ OECD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수출선행지수 역시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여 수출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전망

○ 품목별로는 경쟁력이 높은 무선통신기기, 반도체 등 IT 수출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박·철강 수출 부진도 점차 완화될 전망

○ 다만,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, 철강 등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개선세가 제한될 전망

#### 수출입 추이 및 전망

(단위 : 억달러)

| 구 분          | 2011년<br>연간      | 2012년<br>연간      | 2013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1/4              | 2/4              | 한은전망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산업연구원 전망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하반기             | 연간              | 하반기             | 연간              |
| 수 출<br>(증감률) | 5,552<br>(19.0%) | 5,479<br>(-1.3%) | 1,354<br>(0.4%)  | 1,413<br>(0.8%)  | 2,913<br>(6.8%) | 5,680<br>(3.7%) | 2,905<br>(6.5%) | 5,685<br>(3.8%) |
| 수 입<br>(증감률) | 5,244<br>(23.3%) | 5,196<br>(-0.9%) | 1,299<br>(-2.9%) | 1,275<br>(-2.3%) | 2,739<br>(7.2%) | 5,310<br>(2.2%) | 2,751<br>(7.7%) | 5,360<br>(3.2%) |

주: ( )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

## II.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전망

### 1. 조선 산업

#### 1) 동향

- 상반기 전세계 신조선 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39.5% 증가한 1,666만 CGT를 기록하였고, 신조선가도 2분기말 반등이 나타남
  - 유가하락 전망 등으로 해양부문의 수주가 위축된 반면 에너지 관련 선박과 고효율 선박 이슈 등으로 상선부문 신규 수주 크게 증가
  - Clarkson 신조선가격 지수는 7개월째 바닥권인 126을 횡보한 후 6월 1point 상승
    - 각 선종별 가격지수 역시 1~2point 가량 상승하여 2010년 이후의 지속적인 하락이 반등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음
- 상반기 국내 조선산업 수주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, 여전히 건조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주량으로 수주잔량은 감소 지속
  - 선종별로는 미국의 비전통오일 생산 증가에 따른 정유제품 수출 효과로 제품운반선의 수주가 크게 증가하였고 고효율 선박에 대한 투자 수요로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도 증가
  - LNG선은 비전통가스 생산에 대한 기대 수요로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하락 우려 등의 요인으로 drill-ship 수주는 급격히 감소
  - 상반기 수주액은 고가 제품인 drill-ship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4.6% 증가에 그친 184.9억달러 기록
  - 상반기말 수주잔량은 연초대비 6.4% 감소한 2,832만 CGT
- 상반기 선박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5.3% 감소한 190.4억달러
  - 전반적인 선박 건조량 감소와 선가 하락기 수주 물량들의 지속적인 출회로 수출실적은 2년 연속 크게 감소

## 2) 전망

- 2013년도 선박 수주량은 전년대비 약 52% 증가한 11.6백만CGT 전망
  -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의 시황이 유지되며 제품운반선 등이 상반기와 같은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
  - 해양부문의 수주 부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
  - 해양부문의 부진으로 수주액 증가폭은 약 17%에 그쳐 수주액은 총 350억달러 규모 전망
- 수출은 하반기에 살아나면서 수출감소폭은 소폭에 그칠 전망
  - LNG선, drill-ship 등 2011년에 수주한 고부가선들의 인도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액은 상반기에 비해 증가 전망
  - 이러한 영향으로 상반기 수출액의 폭을 크게 줄이면서 감소폭은 전년대비 1.9%에 그칠 전망

### 조선산업 추이 및 전망

단위: 백만CGT, 억달러, %

| 구 분              | 2010년             | 2011년            | 2012년             | 2013년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1~6월              | 연간전망            |
| 수 주 량<br>(증 감 율) | 11.3<br>(359.9%)  | 13.7<br>(21.0%)  | 7.6<br>(△44.1%)   | 6.0<br>(61.5%)    | 11.6<br>(52.4%) |
| 수 주 액<br>(증 감 율) | 313.2<br>(323.9%) | 508.3<br>(62.3%) | 298.7<br>(△41.2%) | 184.9<br>(24.6%)  | 350<br>(17.2%)  |
| 수 출 액<br>(증 감 율) | 491.1<br>(8.8%)   | 565.9<br>(15.2%) | 397.5<br>(△29.8%) | 190.4<br>(△25.3%) | 390<br>(△1.9%)  |

주: ( )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

자료: Clarkson, 산업통상자원부, 산업투자조사실

## 3) 이슈 및 위험 요인

- 유가하락에 의한 해양부문 위축 지속
  - 미국의 비전통오일 생산에 따른 유가의 하향 전망으로 drill-ship의 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향후 수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
  - 다만, 2008년에 대량 발주된 drill-ship들이 지금까지 활동한 결과의 영향으로 FPSO의 발주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

## 2. 플랜트 및 해외건설

### 1) 산업전체 동향 및 전망

□ **[동향]** 상반기 해외플랜트 수주는 전년동기대비 1.9% 소폭 감소한 280.9억달러를 기록 양호한 수준 유지

○ 과거 60%를 상회하던 중동의 수주 비중이 상반기 수주에서 19.8%까지 하락한 반면 아시아의 비중이 34%, 해양플랜트 위주의 유럽의 비중이 31.6%까지 확대되어 전반적인 지역 다변화 진행중

○ 설비별로는 해양플랜트(21.9%↑)와 Oil&Gas플랜트(6.6%↑)의 수주가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플랜트(67.7%↓), 발전담수플랜트(24.4%↓)의 수주가 크게 감소

○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(플랜트 제외)는 전년동기대비 13.1% 증가한 161.4억달러 기록

- 철도공사 수주 증가로 토목공사 수주가 254% 증가한 115억달러 기록

- 반면 지난해 이라크 신도시 등 대형 수주에 성공한 건축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36%에 불과하여 다소 부진한 실적을 나타냄

□ **[전망]** 금년도 플랜트 수주는 약 4% 감소한 620억달러 전망

○ 플랜트는 상반기의 안정된 수주 흐름을 이어갈 전망

○ Oil & Gas와 일반산업설비 등의 수주가 증가하겠으나 전년대비 석유화학 플랜트의 수주가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4.2% 감소한 약 620억달러 수주 전망

### 플랜트 및 해외건설 수주 추이 및 전망

단위: 억달러, %

| 구 분             | 2010년           | 2011년           | 2012년           | 2013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~6월            | 전망p             |
| 플랜트 수주<br>(증감률) | 644.8<br>(39.3) | 649.6<br>(0.7)  | 647.6<br>(△0.3) | 280.9<br>(△1.9) | 620<br>(△4.2)   |
| 해외건설수주<br>(증감률) | 142.9<br>(4.1)  | 158.8<br>(11.1) | 253.3<br>(59.6) | 161.4<br>(13.1) | 290.0<br>(14.4) |

주: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, 해외건설 수주액은 산업설비(플랜트) 제외치  
자료: 플랜트협회, 201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

## 2) 발전 및 담수 플랜트

□ **[동향]** 주력 시장인 중동지역의 발주 감소로 상반기 발전 및 담수 플랜트 수주액은 49.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.4% 감소

- 수주액은 감소하였으나 수주지역 및 발전원은 다각화되고 있음
  - 수주지역은 CIS(우즈베키스탄), 유럽(프랑스, 루마니아) 등으로 확대
  - 태양광,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증가
    - 루마니아 사투마레 태양광 발전(109백만달러), 모잠비크 마바고 태양광 발전(31백만달러), 인도네시아 살롤라 지열발전(5.9백만달러) 등 수주

□ **[전망]** 2013년 발전 및 담수 플랜트 수주는 전년수준인 190억달러

- 동남아 전력수요 증가, 세계적인 천연가스 발전소 증설, 일본 태양광 플랜트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발전소 발주 증가 전망
  - 중동(사우디), 중남미, 베트남, 터키에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됨
  - 전력공급 부족한 일본은 5GW이상의 태양광 플랜트 건설이 예상

□ **[이슈 및 위험 요인]** 중국, 일본 등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활발한 수주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경쟁 심화

- 경쟁 심화로 해외사업의 수익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유로화 및 엔화 약세로 인해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
  - 일부 회사는 해외 프로젝트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가 수주에 장애요인으로 될 수 있음

### 발전 및 담수 수주 추이 및 전망

단위: 억달러, %

| 구 분         | 2010년            | 2011년            | 2012년          | 2013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~6월            | 연간전망            |
| 수주<br>(증감률) | 359.1<br>(368.4) | 188.8<br>(△47.4) | 193.7<br>(2.6) | 49.5<br>(△24.4) | 190.0<br>(△1.9) |

주 :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

자료 : 플랜트협회, 201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

### 3) Oil&Gas 플랜트

□ [동향] 2013년 상반기 Oil&Gas 플랜트 수주는 중동, 아시아 지역의 10억불 이상 대형 프로젝트 4건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6.6% 상승한 74억달러 기록

-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90달러대 이상의 고유가에 힘입어 석유·가스 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 및 Oil&Gas 플랜트 수요 지속
- 중동 위주의 수주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 수주 급증
  - 중동은 전년동기(39.6억달러)와 유사한 규모인 39.8억달러를 수주, 전체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.1%에서 53.5%로 소폭 감소
  - 아시아 지역은 베트남 NSRP 정유 프로젝트(21억달러)에 힘입어 수주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전체 수주액 중 30.6% 차지
  - 중남미와 아프리카는 수주 예정 프로젝트 지연 등으로 수주액 급감

#### 지역별 수주실적

단위: 천달러, %

| 지역   | 2012 상반기  |       | 2013 상반기  |       | 전년동기 대비<br>증감률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| 수주액       | 비중    | 수주액       | 비중    |                |
| 미주   | 0         | 0.0   | 6,458     | 0.1   | -              |
| 아시아  | 157,522   | 2.3   | 2,262,502 | 30.6  | 1336.3         |
| 아프리카 | 222,863   | 3.2   | 121,863   | 1.6   | △45.3          |
| 유럽   | 467,639   | 6.7   | 1,037,001 | 14.0  | 121.8          |
| 중남미  | 2,133,131 | 30.7  | 0         | 0.0   | △100.0         |
| 중동   | 3,961,547 | 57.1  | 3,975,049 | 53.7  | 0.3            |
| 합계   | 6,942,702 | 100.0 | 7,402,873 | 100.0 | 6.6            |

자료: 플랜트협회

□ [전망] 2013년도 Oil&Gas 수주액은 전년대비 약 20% 증가한 122억달러

- 하반기에도 풍부한 원유, 가스를 보유한 중동 등에서 대규모 발주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수주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
- 연말 쿠웨이트 정유소 개선사업(110억달러 규모)과 신규 정유소 건설사업(140억달러 규모) 입찰 진행 예정



- 중동 주요 국가에서 향후 5년간 680억달러 규모의 가스 프로젝트 추진 계획
- 중남미 주요 산유국에서 현재 협상 중인 정유공장 및 가스처리 플랜트 발주 공사들의 계약이 진행될 경우 하반기 수주 실적 증가 전망
- 대규모 가스전이 발견된 모잠비크는 가스 개발, 수송, 저장, 수출을 위한 저장 및 처리시설, LNG터미널 등의 공사발주 확대 전망

### **Oil&Gas 수주 추이 및 전망**

단위: 억달러, %

| 구 분         | 2010년            | 2011년           | 2012년          | 2013년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~6월          | 연간전망            |
| 수주<br>(증감률) | 119.6<br>(△55.0) | 93.6<br>(△21.7) | 102.0<br>(8.9) | 74.0<br>(6.6) | 122.1<br>(19.8) |

주: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

자료: 플랜트협회, 201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

#### **□ [이슈 및 위험 요인]**

-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, 이라크 정정 불안, 리비아 정식정부 출범 지연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수주 실적 축소 우려
- 대규모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,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등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이 수주확대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 존재

## **4) 석유화학 플랜트**

- [동향] 2013년 상반기 석유화학 플랜트는 중동 지역의 수주 급감을 비롯하여 대부분 지역의 수주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전년 동기대비 67.7% 하락한 12.7억달러 기록
- 예외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플랜트 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급증
  - 아제르바이잔 SOCAR 암모니아 및 요소 플랜트(6.4억달러), 태국 PTT 페놀 프로젝트(2.6억달러) 등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 수주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수주액 중 73% 차지

### 지역별 수주실적

단위 : 천달러, %

| 지역   | 2012 상반기  |       | 2013 상반기  |       | 전년동기 대비<br>증감률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| 수주액       | 비중    | 수주액       | 비중    |                |
| 아시아  | 136,757   | 3.5   | 926,585   | 72.9  | 577.5          |
| 아프리카 | 328,393   | 8.4   | 0         | 0     | △100.0         |
| 유럽   | 0         | 0     | 98        | 0.0   |                |
| 중동   | 3,465,587 | 88.2  | 344,087   | 27.1  | △90.1          |
| 합계   | 3,930,737 | 100.0 | 1,270,770 | 100.0 | △67.7          |

자료 : 플랜트협회

□ **[전망]** 2013년도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대비 약 50% 감소한 40억달러 전망

-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따른 에탄 크래커 경쟁력 제고로 북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북미 외 지역의 에틸렌 생산 플랜트는 지연, 보류될 가능성이 높음
- 과거 월등한 원가경쟁력을 보유했던 중동도 최근 에탄가스 공급 부족으로 납사 크래커 위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에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임
- 다만 아시아 지역은 견고한 경제 성장세가 예상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싱가포르,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발주가 확대될 전망이며 우즈베크도 가스화학 플랜트 추진 예정
- 한편 석유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카자흐스탄(유럽)에서는 석유화학 등 다운스트림 설비투자 확대 추진

□ **[이슈 및 위험 요인]** 글로벌 경기 침체, 미국발 셰일가스 생산 확대의 영향 등으로 국내기업의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침체 장기화 우려

### 석유화학 수주 추이 및 전망

단위: 억달러, %

| 구 분         | 2010년           | 2011년          | 2012년          | 2013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~6월            | 연간전망            |
| 수주<br>(증감률) | 60.7<br>(131.9) | 87.4<br>(44.1) | 81.6<br>(△6.6) | 12.7<br>(△67.7) | 40.0<br>(△51.0) |

주 :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

자료 : 플랜트협회, 201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

### 3. IT 산업

□ [동향] 2013년 6월까지 IT 수출은 812.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.9% 증가

- 휴대폰, 디스플레이 패널,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수출증가가 지속 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가 3월부터 수출증가로 전환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출 기록

- 세계 IT 성장률이 하향하는 등 IT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IT 수출은 호조세 기록

- \* '13년 세계 IT시장 성장률 전망(Gartner, %) : ('13.3월 전망) 4.1 → ('13.6월 전망) 2.0

- 반도체는 마이크론, 엘피다 합병에 따른 메모리 수급 개선,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수요 강화로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.6% 증가한 264.5억달러

-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모바일 수요 증대와 수급 개선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전년동기 대비 15.1% 증가한 114.9억달러 기록

- 시스템 반도체 수출은 Drive IC,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및 반도체 패키징 수출 물량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.4% 증가한 115.9억달러

- 휴대폰 및 스마트폰은 '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1.6% 증가한 116.4억달러 수출

- 삼성전자는 5분기 연속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고, LG전자도 휴대폰 시장 점유율 3위를 회복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시장 38% 차지(1분기 기준)

- 디스플레이 패널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, TV와 PC, 노트북용 패널 수요 둔화가 지속되면서 업황 회복이 늦어져 전년동기대비 0.4% 증가한 149.6억달러 수출

- 4월까지의 중국 절전형 가전제품의 보조금 정책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이후 수출 감소

□ **[전망]** 2013년도 IT 수출은 전년대비 7.0% 증가한 1,661억달러 전망

- 연간 세계 IT시장 성장률이 2%대로 하향 조정되었고, 일본의 엔저 등 대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반도체, 휴대폰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
- 반도체는 엘피다 등 글로벌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급 감소, 메모리반도체 단가 상승에 따른 시장 성장 회복(연간 14.2% 성장 전망, IHS) 등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
- 휴대폰은 하반기 성수기를 겨냥한 신규 스마트폰 출시 및 신흥시장 스마트폰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세 유지 예상
- 디스플레이 패널은 중국 보조금 프로그램 종료와 TV시장 및 애플 부진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수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

□ **[이슈 및 위험 요인]**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에 의한 IT 시장 성장률 위축

- 중국 경기 둔화 우려, 미국의 출구전략, 유럽 경기 추가 침체 우려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이에 따른 휴대폰, 디스플레이 등 세계 IT 시장 성장 위축은 IT 수출 증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- 스마트폰,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중국 기업의 약진 여부 및 애플의 새 출시제품 반응에 따라 스마트폰, 시스템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수출 제품의 판매가 모두 영향받을 가능성 존재

**IT 수출 추이 및 전망**

단위: 억달러, %

| 구 분         | 2010년             | 2011년            | 2012년             | 2013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1~6월p           | 연간전망             |
| 수출<br>(증감률) | 1,539.4<br>(27.3) | 1,566.2<br>(1.7) | 1,552.4<br>(△0.9) | 812.4<br>(10.9) | 1,661.0<br>(7.0) |

주: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201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

## 4. 신재생에너지 산업

### 1) 태양광산업

□ **[동향]** 상반기 세계 태양광시장은 양호한 수요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음

-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문제로 수요감소와 공급과잉 문제가 겹치면서 태양광산업은 최악의 한해를 보냄
- 2013년 상반기는 전년과 비슷한 수요를 보일 것이라 전망되었으나, 예상과 달리 강한 수요가 태양광산업을 이끌고 있음
  - 일본 태양광시장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1분기 승인 물량이 7GW에 달해 세계 태양광 수요를 이끌고 있음
  - 지지부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유럽시장도 독일, 그리스, 및 영국을 중심으로 수요세가 양호

□ **[전망]** 하반기 태양광산업 회복세는 더욱 빨라질 듯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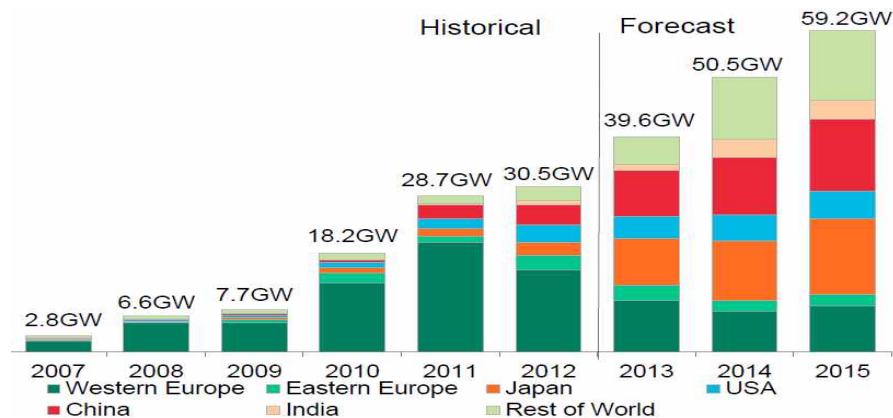
- 2013년 태양광 신규 설치 전망치는 기존 30GW에서 40GW로 대폭 상향 조정
  - 일본, 중국, 및 미국 수요가 하반기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독일 등 유럽시장 수요도 견조할 전망
- 세계 태양광시장은 2014년에 완전한 성장세를 보일 것
  - 동남아시아, 남미 및 중동 등 태양광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어 20%이상 성장한 50GW를 넘어설 전망
- 태양광 기업들의 하반기 공장가동률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
  - 2012년 하반기 30~50%에 불과했던 태양광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80~100% 수준으로 올라갈 것
  - 제품 가격의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서서히 나타날 것

- 연간 수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5억달러를 기록할 전망
  - 상반기중 15억달러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반기에는 업황 개선으로 2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

#### □ [이슈 및 위험 요인]

- 세계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나 제품가격이 여전히 국내 업체들의 제조원가를 밀돌고 있어 실적개선은 선별적으로 이루어 질 것
- 일본 수요 급증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제품 수출 및 사업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 필요

####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



자료 : New Energy Finance

## 2) 풍력산업

#### □ [동향] 상반기 세계 풍력시장은 전년대비 수요가 감소하는 부진한 모습

- 2012년 말 미국 세금공제제도(PTC: Production Tax Credit) 만료에 따른 주문 급감 등으로 세계 풍력수요가 크게 위축됨
  - 2012년 14GW에 달했던 미국 풍력시장 수요가 2013년에는 2.8GW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
- 미국을 제외한 중국 및 유럽 수요는 안정적인 상황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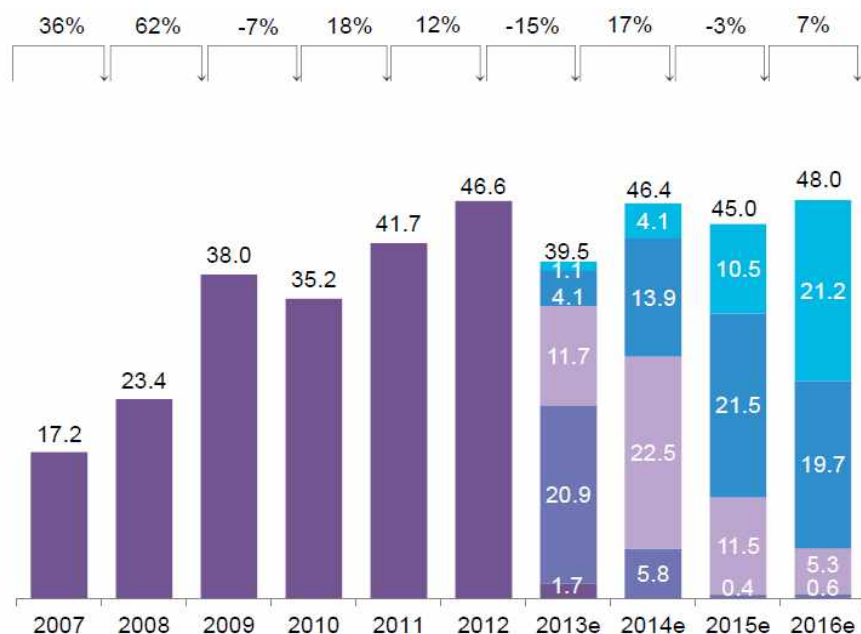
□ [전망] 하반기 풍력시장은 유럽 풍력시장의 수요 증가 및 미국 시장 회복으로 상반기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

- 유럽의 풍력 의무 설치량을 맞추기 위한 수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며, 미국 풍력수요도 하반기 이후 서서히 회복할 전망
- 올해 풍력수요는 전년대비 15% 감소한 39.5GW에 불과하나, 2014년에서 2012년 수준인 46GW까지 회복할 것
  - 2014년 미국시장이 8GW 수준으로 회복하고,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 수요 증가로 예전 수준으로 수요가 회복될 전망

#### □ [이슈 및 위험 요인]

- 풍력산업은 성장단계를 넘어 성숙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, 현 수요에서 안정화될 전망
- 국내 터빈업체들의 Track Record 부족 및 가격 등 경쟁력에서 선두기업과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
  - 하반기에도 국내 풍력터빈 업체들의 수주실적은 여전히 저조할 전망

#### 풍력시장 현황 및 전망



자료 : New Energy Finance

## 5. 철강 산업

### □ [동향] 상반기 세계 철강시장은 공급과잉이 심화됨

- 5월까지 전 세계 조강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2.1% 증가한 658백만톤을 기록
- 자동차, 기계, 조선, 건설 등 수요산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초 감산을 계획했던 중국이 감산에 실패함(8%↑)으로써 공급과잉이 심화됨
- 시카고상업거래소 열연코일 가격은 상반기 평균 톤당 609.25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.6% 하락하여 철강가격도 약세를 보임
- 5월까지 국내 조강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5.2% 감소한 2,760만톤 기록
- 상반기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.9% 감소한 163.7억달러

### □ [전망] 하반기에도 공급과잉과 약세장이 지속되며 수출도 감소 전망

- 9월로 예정된 현대제철 제 3고로 등 생산능력 확대에 동아시아 지역의 공급과잉 심화 전망
- 전 세계 연간 조강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2% 증가한 15.4억톤 전망
- 금년도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약 9% 감소한 336.4억달러 전망

### 철강제품 수출 추이 및 전망

단위: 억달러, %

| 구 분         | 2010년           | 2011년           | 2012년           | 2013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~6월             | 연간전망            |
| 수출<br>(증감률) | 288.7<br>(25.4) | 384.8<br>(33.3) | 369.7<br>(△3.9) | 163.7<br>(△11.9) | 336.4<br>(△9.0) |

주: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201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



## 6. 석유화학 산업

- **[동향]** 상반기 석유화학제품은 244.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.7% 증가
- 국내업체들의 신증설 물량 증가 등으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증가
  - 수익성이 저조한 일부 설비를 폐쇄한 EU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데 반해 최근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석유화학 제품의 원가경쟁력이 높아진 미국으로의 수출은 대폭 감소
  - 지역별 수출증가율(1.1-6.20일, %) : (EU) 26.8 (중국) 12.8 (일본) 4.0 (ASEAN) 2.5 (중남미) 2.3 (중동) △2.5 (미국) △14.9
- **[전망]** 2013년 석유화학 수출은 전년대비 6.8% 증가한 490억달러 전망
- 2011년 이후 침체된 석유화학 경기가 하반기 중국 GDP 성장률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
  - 6월 이후 납사 가격 하락, 기초유분(에틸렌, 프로필렌) 수급 타이트 등 제품 수익성 개선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
  - 다만 부타디엔은 신규공급 증가 및 수요 부진, 높은 수준의 합성고무 재고 등의 요인으로 최근 4년 만에 최저 가격을 기록하는 등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- **[이슈 및 위험 요인]**
- 최근 미국의 출구전략, 중국의 유동성 경색 등이 석유화학산업의 경기회복을 저해시킬 가능성 존재
  - 미국 셰일가스 기반의 제품, 중국 석탄화학제품 등 원가경쟁력이 높은 제품과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 악화 우려

### 석유화학제품 수출 추이 및 전망

단위: 억달러, %

| 구 분         | 2010년           | 2011년           | 2012년          | 2013년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~6월p          | 연간전망           |
| 수출<br>(증감률) | 357.0<br>(30.0) | 455.9<br>(27.7) | 458.8<br>(0.6) | 244.5<br>(7.7) | 490.0<br>(6.8) |

주: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201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